
구조고도화 사업은 과연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

국회 토론회

- 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의원식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목 차

- 일정 P. 03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정책방향 모색..... P. 05
 - 김철식(포항공대 융합문명연구원 연구교수)

-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제도와 현실 P. 15
 - 윤지영(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 사례 발표 P. 29
 - 배태선(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일 정

● 사회 :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

순서	내용
인사말	-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 이승렬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1부> 주제발제	- 주제 1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정책방향 모색 - 발제자 : 김철식 (포항공대 융합문명연구원 연구교수)
	- 주제 2 :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제도와 현실 - 발제자 : 윤지영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 질의응답
<2부> 사례발표와 토론	- 사례 발표 :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토론 : 구조고도화 사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정책방향 모색

2019. 10. 4

김철식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진행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라는 명칭으로 공단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음.
 - 2009. 4.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발표
 - 2009. 12. 4개 시범사업단지 선정 (인천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단지)
 - 2010. 4 산집법 개정: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절차,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추진체계 마련
 - 2010. 10 'QWL밸리 조성계획' 발표
 - 2010. 11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
 - 2011. 재원조달 지원을 위해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 2013년 9월 최대 25개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 제시
 - 2013. 11 구조고도화사업 확산단지 선정 (주안.부평, 창원, 군산.군산2, 대불, 서울디지털)
 - 2014.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중장기 발전계획(2014년부터 10년간) 발주
-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공단 재구조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
 - 산업기능의 활성화 ←-----→ 산업기능의 폐지와 전환(탈산업화)

구조고도화 정책의 배경

- 경제위기와 산업구조 양극화
 - 수출부문 대기업 나홀로 성장과 독과점 강화.
 - 내수부문, 중소기업의 주변화, 영세화
 - ⇒ 중소기업 중심 공단들의 쇠락, 주변화
- 신성장동력 발굴 정책의 성과 미흡
 -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육성 추진
 - : 벤처산업, IT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발사업으로 돌아가려는 경향
 - : 경제특구, 지역특화특구, 혁신도시, 관광리조트 건설 등

구조고도화 정책의 배경

- 공단의 과잉공급
 - 2008. 6 특례법 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절차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정권 확대
 - => 산업단지 지정 급증
 - : 2002년 511개 산업단지 -> 2011년 948개 -> 2018년 1,194개
- 공단개발 주체의 변화
 - 공공주도 -> 민간주도; 중앙정부 -> 지자체
 - => 개발수익획득이 구조고도화 사업의 중요 동기로 작용
- 단기적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공단정책을 추진
 - 새로운 성장동력 제대로 발굴하지 못함
 - 개발사업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접근

전국 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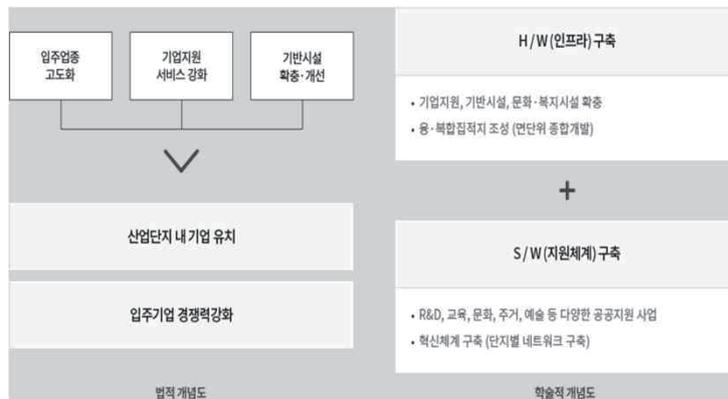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입주업체	가동업체	가동/입주업체 비율	고용	가동업체 당 평균고용
국가	44	786,671	586,831	51,639	47,257	91.5	1,122,856	23.8
	구미 1단지	10,223	10,223	2,275	1,945	85.5	90,546	46.6
일반	653	539,641	535,915	38,039	34,652	91.1	883,213	25.5
도시첨단	27	7,348	7,341	471	295	62.6	9,866	33.4
농공	470	76,105	75,679	7,135	6,457	90.5	149,666	23.2
총합	1,194	1,409,765	1,205,766	97,284	88,661	91.1	2,165,601	24.4

* 2018년 2분기 기준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통계, 각년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에 촉진하고, 입주기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산집법 2조 11항)



구조고도화 주요 세부 사업

구분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비고
혁신공간 창출 (3)	합동공모	①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입지공간 제공)*	-
	상시공모	②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
	합동공모	③ 부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
혁신 역량강화 (4)	합동공모	①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
	개별지원	② 종합비즈니스센터	중요사업
	합동공모	③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중요사업
	합동공모	④ 산업단지 캠퍼스사업	중요사업
혁신환경 조성 (14)	합동공모	①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주거, 편의시설)*	-
	합동공모	② 산업단지편의시설확충 사업 (노후기반시설개선, 근로자기숙사)	중요사업
	합동공모	③ 근로자 종합복지관	중요사업
	합동공모	④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
	합동공모	⑤ 적극적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운영	-
	합동공모	⑥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지역매이킹
	합동공모	⑦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운영	중요사업
	합동공모	⑧ 고용환경개선시설 용자	중요사업
	합동공모	⑨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
	합동공모	⑩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합동공모	⑪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합동공모	⑫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합동공모	⑬ 공동유통 공공지원사업	제외사업
	합동공모	⑭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제외사업

출처: 조혜영 외(2017),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연구 2017-2, 26쪽.

구조고도화 사업 내용: 산업집적시설 건립

- 집적화 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
=> 유사업종 집적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도모
- 구미: 폐업한 공장부지(282천㎡)에 금형·IT융복합·전자의료기
기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59개 업체 입주 유치(산학연 융합
단지).
- 남동: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처리부지를 활용하여 전기전자업
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청정지식산업센터).
- 반월시화: 환경업종 이전집단화를 위해 도금 및 PCB업종 집적
화 공장 건립.

구조고도화 사업 내용: 기업지원시설 건설

- ▶ 지식산업센터 건설
 - ▶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을 위한 대표적 시설로 건설되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의 산업활동 여지는 제한적임.
 - ▶ 오히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 새로운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 기업지원시설 건설: 종합비즈니스센터, 호텔, 오피스텔 등
 - ▶ 종합비즈니스센터(시화, 인천남동, 익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창원), 안산드림타운(오피스텔, 반월시화), 호텔 및 주거편의시설(반월시화), 시화 기숙사형 오피스텔(시화), 기숙사부지 재개발(구미) 등.
 - ▶ 혁신지원센터 3개소 건립 추진(부평, 대불, 창원), 5개소 건립 중(여수, 양산, 하남, 명지녹산, 신평장림)

구조고도화 사업 내용: 산업단지 복합화

- 산업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복합된 복합용지 조성

<창원 스마트업파크 조성>



구조고도화 사업 내용: 펀드사업 연계

-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사업
 - 민간부문 참여와 금융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시드머니로 펀드를 조성, 투자
 - 공단개발사업이 금융시장과 연계됨
 -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 위주 개발 진행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실적 (2011-2016년)

구분	추진실적
이전집단화	PCB.도금업종 1건
지식산업센터	7개
기숙사형 오피스텔	4개
비즈니스 호텔	2개

출처: 조혜영 외(2017),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연구 2017-2, 30쪽.

구조고도화 모범사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2000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화 사업이 진행되었음.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대규모로 건설.
: IT, 벤처산업, 각종 서비스업을 유치함.
 - 대규모 패션디자인 타운 조성.
- => 전통 제조업 공단에서 '첨단산업' 중심 공단으로 변모
- 산업생산의 공간에서 상업화된 소비의 공간, 사무실과 유통서비스의 공간으로 변모함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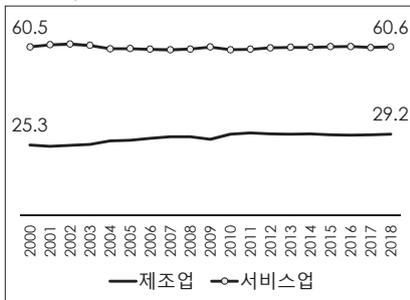
- 1,2,3단지 구조고도화 15년 계획(2009-2024년)
 - 총 4,488억원 투자(1단계 2,398억원, 2단계 2,090억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착공(예 정)일	준공(예 정)일	비고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휴폐업 유휴부지를 활용하 여 성장유망 중소기업 입지 지원	금형, IT융복합신소재, 그린에너지, 3D디스플레이 집적화단지	88,982	2010.11	2015.07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연 구, 생산시설 입지지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2010.11	2015.07	
체육시설 개선사업	운동장을 개선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을 확충	축구장, 족구장, 화장실 등	300	2011.01	2011.12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구미단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및 신산업 공간 조성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텔, 혁신센터 등	151,175	2015.11	2017.12	
스포츠콤플렉 스건립사업	산업시설 및 복합체육시설 공간 확장	산업시설, 옥외 풋살경 기장, 실내풋살경기장, 복합실내체육관	19,180	2016.12	2018.11	신규
주거시설 확충사업	노후화된 주거시설 개선으 로 주거 여건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	28,628	2016.12	2019.11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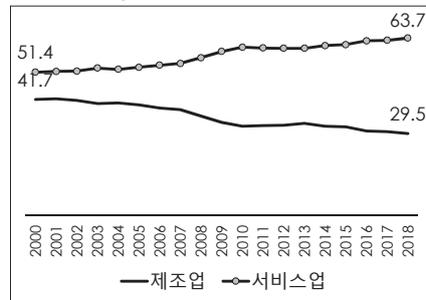
구조고도화 지향점: 탈 산업화? or 산업 활성화?

-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
 -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비
중은 정체상태

제조업/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제조업/서비스업 고용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

개발 중심 구조고도화 정책의 실효성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사례와의 비교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던 2000년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배경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개발 중심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 구조고도화가 사업만 벌여놓은 상태에서 개발수익 획득이 어려워지면 산업단지 자체가 황폐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개발 중심 구조고도화는 산업 기능 활성화에 부정적
 -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 → 신흥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부담 증가
 - 영세업체, 임차업체의 증가 → 산업활동의 불안정성 증가

산업단지 환경 개선은 좋은 일자리에서부터

- 산업단지 외관 개선 이전에 생산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
 - 구조고도화 사업은 새로운 상업, 문화, 주거시설 건설을 통해 산업단지 외관 개선에 집중
-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대책이 필요
 - 산업단지에 만연한 간접고용 규제
 -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
 - 위험/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

참여적 구조고도화 정책

- 산업단지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 및 참여 부재
 - 지자체, 사업시행자, 노동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수립에 있어 산업단지 노동자 의견 수렴 및 참여가 필요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제도와 현실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산업단지와 제조업

산업단지는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 관리되는 공공재다.

정부는 지속적인 산업발전,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국토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세금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 제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는데 제조업의 중심인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생산,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산집법 제1조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조업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들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국들에서 경제 복원력과 고용 유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육성하고 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다¹⁾. 2016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로서 산업단지의 혁신 없이는 우리 제조업의 혁신도 불가능”하다고 했다²⁾.

2.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혁신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로서 산업단지의 혁신 없이는 우리 제조업의

1)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2017.

2) 4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요약서, 산업통상자원부, 2016.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단지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단지가 늙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 법령들도 제·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이 집행되어 왔다. 산업단지를 개발·공급하는 것을 주로 규율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재생사업’을 신설했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재개발·정비하겠다는 목적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개발된 산업단지에의 공장 입주와 산업단지 관리를 주로 규율하는 산집법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개발·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도 노후 산업의 재정비사업이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간대행 형식으로 진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민간업체들의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구조고도화사업의 공적인 기능 상실 우려

가. 법령의 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공공재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정부를 구조고도화사업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권자다(산집법 제30조 제2항). 사업의 시행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며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산집법 제45조의3 제1항). 물론 산집법은 민간에게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고, 민간기업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다.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고도화사업에는 민간이 맡아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나. 현실

그러나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구조고도화사업은 대부분 민간에 의지한 것이었다. 2018. 6월말 기준, 완료되거나 진행된 구조고도화사업 62개 중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은 사업은 16개, 총 사업의 25%에 불과하다. 총 사업비 2조2천2억원 중 민간자본의 비중은 70%에 이른다³⁾.

민간기업이나 자본이 구조고도화사업에 그냥 들어올 일은 없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 투자의 대상, 이윤 창출의 대상인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적이기 어렵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자칫 수익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것도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사업의 시행 여부가 수익 가능성에 좌우된다는 것, 즉 노후화가 심해서 재배치가 절실한 산업단지라도 수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아직은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심과의 거리 등을 이유로 개발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다. 둘째, 수익을 내기 위해 산업단지의 기능과 본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민간업체는 수익을 내기 위해 분양률이 높은 상업시설을 짓고 시설의 분양가 및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4. 상업시설 확충에 집중된 구조고도화사업

가. 법령의 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3) <노후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실태분석 및 감사 시사점>, 김성연,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8. 12.

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산집법 제2조 제10호, 제45조의2 제1항).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유치 촉진이다. 제조업은 산업단지의 핵심 산업이고,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국가산업단지에서의 구조고도화사업은 국가기간산업인 제조업, 첨단과학기술산업에 부합하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러한 산업의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의의가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구조고도화사업이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구조고도화사업의 하드웨어에 해당할 뿐이다. 기업지원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방식의 구조고도화사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힘들다.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쇼핑몰, 호텔 등의 상업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된 시설이 아니다. 법령에 의하면, 구조고도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산집법 제2조 제9호)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산집법 제2조 제10호)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산집법 제2조 제11호, 산집법시행령 제4조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시설·통신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6. 공동방지사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사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현실

그간 진행되어 온 구조고도화사업은 절대적으로 시설 개량 및 확충에 집중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입주기업들이 산업단지 내에서 자리 잡을 여지가 줄어들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고도화사업을 명분으로 산업시설구역이 지원시설구역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공장부지가 줄어들고 상업시설부지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상업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늘리거나 공장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소규모로 사무실을 분할하게 되면 대규모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제조업은 위축되고 입주기업은 공동화된다. 특히 민간대행사업자를 통한 구조고도화사업은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이나 임대 가 용이한 시설을 짓는 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민간대행 구조고도화사업의 현황>4)

구분	단지	사업명	사업내용	부지면적(㎡)	사업비(억원)	비고
시범사업 (*10~13년)	반월시화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PCB공장	15,809	465	준공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오피스텔, 근생	8,387	571	준공(산업→지원)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1	주유소, 근생	2,610	40	준공(산업→지원)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2	주유소, 근생	1,653	29	준공(산업→지원)
		총천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	주유소	3,967	67	준공(산업→지원)
	남동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기숙사	2,314	130	준공(산업→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	지식산업센터	6,560	244	준공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	지식산업센터	5,951	244	준공
		운송장비 정비센터 및 주유소 등 건립사업	주유소, 정비소	3,995	167	준공(산업→지원)
		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	주유소, 근생	1,649	50	준공(산업→지원)
소계				52,895	2,007	

본 사업 (14년)	서울디지털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도시형생활주택	5,431	612	산업→지원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연구시설	2,440	56	산업→지원
	반월시화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사업	에너지공급시설	3,284	68	준공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차량정비시설	3,284	68	도시계획시설 해제
주안부명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PCB업종집적화	5,600	485	준공	
본 사업 (15년)	구미	주거시설 확충사업	도시형생활주택	5,623	286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풋살장, 체육관	33,449	192	산업→지원
	익산	센트럴파크 복합개발사업	도시형생활주택	8,123	684	산업→지원
	남동	프레스기계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프레스기계공장	5,790	130	준공
서울디지털	G-square 건립사업	복합업무시설	19,090	3,974	일부 지목변경	
반월시화	메디칼 레지던스 건립사업	오피스텔, 검진센터	3,871	535		
반월시화	길산복합건물 건립사업	지식산업센터 등	11,610	776	산업→복합	
본 사업 (16년)	남동	JK루체스타 건립사업	남동회관 등	4,367	628	지원→복합
		화장품클러스터 건립사업	화장품산업 집적	3,269	120	준공(지원→산업)
	주안부명	헤인스케어 건립사업	근린생활시설	767	12	산업→지원
본 사업(14~16) 소계				115,999	8,616	
본 사업 (17년)	남동	인테리어갤러리 건립사업	전시장, 근생	6,189	193	준공(산업→지원)
		남동인더스키이건립사업	지식산업센터	9,900	936	
	군산	호텔컨벤션 복합개발사업	숙박시설, 근생	16,529	213	산업→지원
	신명장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립사업	도생, 오피스텔	4,881	773	산업→지원
본 사업 (18년)	서울	복합용도개발 구조고도화	기숙사, 업무시설	9,379	2,304	산업→지원
	구미	SMG 멀티플렉시티 건립	터미널, 오피스텔등	101,024	3,775	산업→지원
	반월	안산휴먼테크 복합구역 건립	자산, 오피스텔등	9,521	1,010	산업→복합
	반월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	지식산업센터	33,512	3,282	인증형
본 사업 (19년)	구미	바이오메스 발전소 건립사업	터빈, 보일러 등	12,414	1,391	도시계획시설지정
	녹산	이노밸리 센트럴타워 건립사업	혁신지원센터, 기숙사	3,553	692	
	서울디지털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	자산, 업무시설, 근생	7,789	1,600	인증형
본 사업(17~19) 소계				197,002	15,494	
민간대행사업(10~19) 합계				365,896	26,117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9. 8. 12.에 발표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모지침서>는, 아예 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도입을 염두하고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모지침 제50조 (대규모 점포 도입에 따른 사항)
① 대행사업에 대규모 점포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 복지·편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도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신청자가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위치, 방식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4) <2019년도 구조고도화사업 통합 설명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 8.

- ④ 대규모 점포는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입주기업 등의 이용에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도록 계획해야 하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및 민원발생 등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배제한다.
- ⑤ 대규모 점포의 설치 규모는 다른 유치시설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⑥ 대규모 점포는 기존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결과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 주객이 전도된 구조고도화사업

가. 법령의 취지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산집법 제45조의2 제2항). 그러나 대행하게 한다고 해서 사업시행의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대행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에 대행하게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행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산집법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3항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 7.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 9.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 10.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 11. 자원조달방안
- 12.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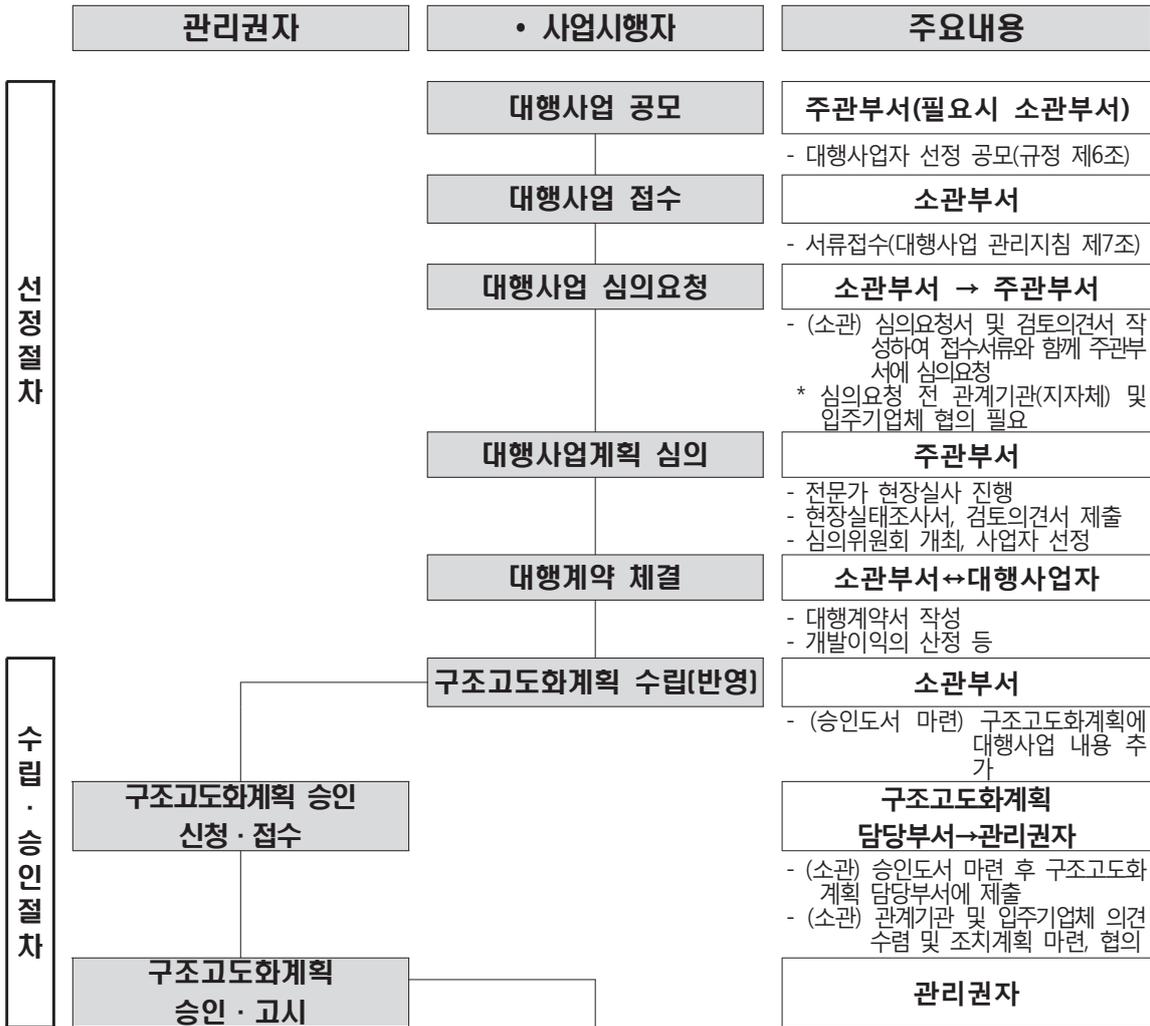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맞춰, 그 중 일부에 대한 대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 산집법시행령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다. 사업의 시행기간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대행하게 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나. 현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9. 8. 12.에 발표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보면, 법령과 달리, 구조고도화사업을 민간대행사업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민간대행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구조고도화사업을 수립한다.



이런 이유로 공모지침은 대행사업자의 업무로서 “대행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명시하고 있다.

공모지침 제16조 (대행사업자의 업무범위, 역할과 책임)
① 대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허가의 취득 및 준공에 관한 업무
2. 모든 거래계약(공사도급계약, 설계 및 감리위탁계약 등 포함)의 체결
3. 대행사업의 설계·시공, 품질·안전·현장관리
4. 본 계약 및 대행사업과 관련한 민원사건의 처리 및 해결
5. <u>대행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u>
6.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신용제공, 지급보증 등 포함) 등
7.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대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이렇듯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실상 구조고도화사업의 모든 것을 민간대행사업자에

게 맡겨두고 있다. 노후산단의 혁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계획하고 이에 맞춰 사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대행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계획되고 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6. 한국산업단지공단 역할 외면

가. 법령의 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가장 많은 숫자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50년 넘게 산업단지 관리를 선도해 왔다. 특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방식은 다른 관리기관에 그대로 전수되는 등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법률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와 역할을 별도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산업법 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산집법시행령 제58조의8(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13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삭제 <2011. 6. 27.>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8. 토지의 취득·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2.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는 역할은 방대하다.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사업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몫이다.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의 내용 중에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도 포함되므로, 위에 기재된 내용이 구조고도화사업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현실

민간업체와 달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이므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산업단지 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공기관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구조고도화사업에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민간대행 방식으로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부득이 민간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 감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결과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산업단지 내 기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 예컨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천남동공단, 반월시화공단에서 민간대행 방식으로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했지만, 산업단지 인근 주유소보다 높게 형성된 산업단지 내 주유소의 유통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 준공 이전까지 재투자되어야 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개발이익을 정산한 이후에도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지 않았다⁵⁾.

7. 결론

2019. 8. 12.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18개 국가산업단지와 3개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19. 8. 30. “민간대행사업 투자사업 참여희망 사업자(입주기업, 금융투자사, 시행사, 건설사 등)”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산업단지라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의 공익적인 목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제조업체인 (주)KEC는 올해 초 정관까지 변경하면서⁶⁾ 공장 부지에 복합환승센터, 레지던스호텔, 쇼핑몰 등을 짓는 내용으로 대행사업을 신청했다. 참고로 (주)KEC는 이미 3차례 대행사업을 신청했다가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대행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신청을 내버려 두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하게 민간대행 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되고 민간대행 구조고도화사업이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총 7건의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중 민간대행 방식으로 진행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구조고도화사업은 계약 해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⁷⁾. 작년부터는 <SMG 멀티플렉스시티 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구조고도화사업 중 가장 큰 규모(사업면

5) <노후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실태분석 및 감사 시사점>, 김성연,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8. 12.

6)

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

적 :101,024제곱미터)의 민간대행 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되어, 산업시설구역을 지원 시설구역으로 변경하기까지 하였지만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다. 노후산단의 혁신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반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4.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5. 자회사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 6.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7.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8.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9.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10. 수출입업 및 통 대행업 11. 부동산 개발업 12. 부동산 임대업 13. 반도체 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업 14. 전자 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15. 전 각호와 관련된 기술 서비스업 16. 전 각호와 관련된 판매 및 수출입업 17. 전 각호와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 	<p>제2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0. (좌동) 11. 반도체 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업 12. 전자 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13. 인력파견업 14. 각종음식료 판매업 15. 공원 및 유원지운영업 16. 관광, 숙박업시설 및 운영 17. 대형쇼핑몰운영, 프랜차이즈업 1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19. 백화점 문화센터업 20. 백화점 영업관련업 21. 보육 및 복지시설 건설 및 운영업 2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23. 부동산에 대한 투자,임대,관리 및 매매업 24.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25. 식품 도소매업 26. 영화관운영업 27. 영화상영업 28. 오피스텔 임대업 29. 육상 운동지원 서비스업 30. 전시 및 회의시설 건설 및 운영업 31. 주류판매업 32. 주차장업 33. 체육시설, 운동경기장, 운동설비의 건설 및 운영업 34. 학원업 35. 호텔업 36.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37. 전기 각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p>목적사업 수정 및 추가</p>

KEC, 구조고도화 쫓다 망가진 공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KEC와 구조고도화의 잘못된 만남

2011년

복합단지 건립사업 (주)KEC

	업 체 명 (대상부지)	기존공장(㎡)	설립일 주생산품	매출액 종업원
	(주)KEC (구미시 공단동 149 외)	토지 : 332,919 건물 : 89,409	'06.09.09 (분할신설) TR, IC	3,452억원, 917명
주요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심사결과	
복합단지, 백화점, 호텔, 지식산업센 터시설도입	토지 : 161,000 건물 : 417,088 (B2~20층)	6,261억원	64.9 (부적정)	

가. 대상기업 : ㈜케이씨(대표자 : 김경덕)

나. 사업내용 : 복합단지 건립사업

-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호텔, 컨벤션, 교육보육시설 등 문화, 복지시설

다. 총사업비 : 6,261억원

라. 평가결과 : 미선정(평균점수 70점 미만), 끝.

G-WELL DREAM PARK 조감도



KEC 자본의 꿈

KEC와 구조고도화의 잘못된 만남

2012년

개발 구상 1

		<p>복합물류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 산업단지 전체 를 위한 첨단 물류 센터 확충 <p>전통시장특화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 · 도농 교류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지산지소 운동 및 로컬푸드 운동 결합으로 지역 특산물 직거래 <p>전시 및 종합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전시 공간 · 기업의 기술자문 및 마케팅 지원 기능의 종합지원 센터 <p>기숙사형 오피스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인력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주거형 오피스텔 · 지식산업 센터 및 산업시설들의 연계 및 지원 강화 <p>복합판매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y Tenants 로서 광역상권을 위한 백화점 도입 · 백화점 도입으로 유동인구 및 집객효과 극대화
--	--	--

“어셈블리 공장이 사라졌어요”

개발 구상 2

		<p>지식산업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도입 · 고도화 업종의 유치를 위한 첨단 생산기반시설 확충
		<p>교육 및 보육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보육센터를 설치해 여성인력 활용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 ·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산업단지 추구
		<p>테마 외식타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있고, 품격있는 테마 외식타운 조성으로 소비활성화 · 시민과 근로자의 다양한 외식 공간제공
		<p>레지던스 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내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숙박시설 · 비즈니스형 숙박 수요 위한 합리적 가격의 Full - Furnished Residence
		<p>교통환승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WL 사업의 일환인 자 전거 거점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생활 밀착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간 환승 정보 제공 및 이용활성화 도모

KEC 구조고도화에 대한 산업단지공단의 입장

2013년

- 행복산단팀 신국재 주무관 02-2110-4746 -

홍익락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 내용>

- ① (주)KEC의 백화점 입점 추진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 입장
- ② 향후 구미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 ③ 구미 구조고도화사업의 원칙

□ (주)KEC의 백화점 입점 추진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입장

⇒ (주)KEC의 백화점 관련 사업은 산업부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승인 신청된 바 없음

○ 동 사업은 산업단지공단의 사업공모 절차에 접수된('12.2월) 사업

- 산단공은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소상공인,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절차 : 사업공모(산단공) ⇒ 의견수렴(공청회등, 산단공) ⇒ 산단공심의위원회 (지역본부) ⇒ 산단공심의위원회(본사) ⇒ 승인신청 ⇒ 부처협의·의견수렴 (산업부) ⇒ 승인여부 확정(산업부)

산업부는 동 사업과 관련, 지역 소상공인, 시민단체,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신청 받지 않을 예정

“산단공은 약속을 지켜라!”

KEC와 구조고도화의 잘못된 만남

2014년

2014년 구조고도화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

2. 심의결과 : 총 10건(적정 1건, 조건부 적정 4건, 부적정 5건)

단지	대행사업자	사업 내용	평가결과	부적정사유 및 조건
주안 부평	씨엔전자	PCB관련업종 집적화, 친환경폐수시설	조건부 적정 (84.7점)	분양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비에이치	근로자오피스텔, 지원시설, 문화시설	조건부 적정 (78.5점)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어린이집 위치조정 필요
창원	대림비앤코	공장,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주차장 등	부적정 (53.6점)	대규모 주거사업 타당성 부족 제조시설(공장이전) 투자계획 미흡
구미	KEC	공장, 오피스텔, 공동주택, 판매장 등	부적정 (50.8점)	개발수입금의 제조 투자계획 미흡 산단내 대형판매시설 타당성 부족
	방림	지식산업센터, 호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부적정 (52.2점)	대규모 주거사업 타당성 부족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흡
	오리온전기	공장, 빙상장, 풋살장, 실내테니스장	조건부 적정 (75.3점)	근로자 편익증진 프로그램 확보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보완
군산	효창건설	자동차정비시설, 주유시설, 편의시설	부적정 (56.7점)	현 용도(창고업) 투자없이 아적장 활용하는 부지이며, 주유소 설치에 대한 타당성 부족
	BGH코리아	오피스텔(300세대)	조건부 적정 (75.2점)	임대운영(근로자용) 및 공개공지 확대
서울	산단공	운동장, 편의시설	적정 (87.8점)	-
반월 시화	이성현 → 원대산업	건강검진센터, 병원 등 * 기승인된 대행사업의 양도승인 심사	부적정 (48.8점)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 부실 대행사업자의 대행능력 부족

“부동산 투기로 몰린 구조고도화”

2019년 KEC 구조고도화 조감도



정경유착의 검은 손들

노동청 압수수색자료(이신희 기조실장 업무수첩)

6/7 CEO

• 고도화 승인 무결 → 64. ^은 닷 (보증 합계)

기본 P. ^은 + 산단 3. ^은 1. 기원 P. ^은 + 시도 3. ^은 1. 2. ^은

↳ 고도화 처장 + 심학봉 국장 Mtg

↳ INO 측 + 산단 측 → 원해방 내 재추진

- ▶ 고도화 사업 부결, 산단공 고도화 처장, 지식경제부 심학봉 국장 미팅. 산단측과 재추진 협의

6/16~17 CEO

▲ 고도화 관련 : 처장공문 등 29 분의 기재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공동민거토

▲ 고도화 관련 F/U (문부각 Mtg & 처장 Mtg)

- ▶ 재추진 본격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정경유착의 검은 손들

노동청 압수수색자료(이신희 기조실장 업무수첩)

7/11 CEO

• 지경부 심학봉 국장 MT'용 → 2page 압송해 달라.
↳ 대충 살펴본 후 석명자로 Review

• 지도위 중재 관련 → 7/5 (1차) 7/11 (2차)

↳ 위원장 중재안에 대한 양측 의견 제시 **중요!**

법남일모 백 중재, 심학봉, 김성조 석명(?)

↳ 고도화 관련

- ▶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담당국장 심학봉과 공조
김성조는 당시 구미시 국회의원, 지역 언론 로비

7/25 CEO

◎ 기존 고도화 관련 → 지경부 차관 국장 재구명상

↳ 직접 Briefing 기회 요청

- ▶ 지경부 차관과 국장 구미 방문, 직접 브리핑 요청, 담당 국장 뿐 아니라 차관까지 로비

정경유착의 검은 손들

노동청 압수수색자료(이신희 기조실장 업무수첩)

8/19 CEO

- 구조고도화 재공모 10/4~末 予定 (10月初公告)
 - ↳ 주무부처 차관324 Mt'g (= 지자체도 참석 예정)
 - ↳ 11/初 事業者 선정. 12/4~6月는 최종사명승인
 - ↳ 의원. 상의 언론. 지정부.

▶ KEC는 구조고도화 재공모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

8/23 CEO

▷ 구비시장 Mt'g 8/8~10

8/26(금) 구비2 Mt'g

- 고도화 관련 지정부내 재공모 결정 (8/26) ↑

▶ KEC는 주무부처 구조고도화 재공모 결정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정경유착의 검은 손들

노동청 압수수색자료(이신희 기조실장 업무수첩)

8 / 29 CEO

• 고도화 관련

↳ 신영호) 긍정적 의견 (8/1) Top Mt'g 제안有

↳ 지경영 차관 3차 회의 (8/26) 재공모 확정

↳ 3미사라 + 시차 검토 (8/31)

↳ 3미시 경제동향국장 Mt'g 설매 시장 Arrange 9차

▶ KEC는 구조고도화 재공모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관련 일정도 사전에 상세히 알고 있었음.

정경유착의 검은 손들

노동청 압수수색자료(이신희 기조실장 업무수첩)

8/30 CEO

- 고도화 관련, 차관 3차 회의 → 구미 구미시장 참관
↳ 시장 방문장 시장 방문 기록

8/31 CEO

- 8/6 16:00 남유진 시장 Meeting → 자료 준비

▶ KEC는 남유진 구미시장을 만나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공감대

고도화 관련 차관 3차 Meeting
↳ 구미시 관광 전차 공감대 OK

▶ KEC의 적극적인 로비, 관계기관의 사전 정보 공유의 결과

정경유착의 검은 손들

노동청 압수수색자료(이신희 기조실장 업무수첩)

9/2 CEO (양재)

• 고도화 관련 심 단장 Mt'g 예정

▶ KEC그룹 곽정소 회장과 심학봉(구조고도화 사업단장으로 추정됨) 양재동 본사에서 미팅

10/20 CEO

◎ 고도화 관련 → 10/20 (구미, 본사, 지경부 일정협의)

▶ KEC 구미, 본사, 지경부가 일정을 협의함.

정경유착의 검은 손들

노동청 압수수색자료(이신희 기조실장 업무수첩)

1/2 CEO (양재)

• 고도화 관련 상단장 Mt'g 예정

▶ KEC그룹 곽정소 회장과 심학봉(구조고도화 사업단장으로 추정됨) 양재동 본사에서 미팅

10/28 CEO

◎ 고도화 관련 → 10/28 (구미, 본사, 지경부 일정협의)

▶ KEC 구미, 본사, 지경부가 일정을 협의함.

폐업의 공포는 괴담이 아니다

가동중인 공장에 복합쇼핑몰 건립?

1) 구조고도화로 반도체 공장의 제품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구미공단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KEC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번이나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신청을 했다 부적격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주)KEC는 클린룸이 있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반도체 제품은 먼지와 진동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대규모 건축공사가 진행되면 진동과 먼지로 반도체 제품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뿐 아니라 복합환승터미널에 수 백 대의 버스가 매연을 내뿜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제조업 공장은 단계적 폐업 혹은 전면적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600여명의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 만약 KEC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가 된다면 구미공단 제조업체는 더 이상 제조업을 할 의욕은 없을 겁니다. 제조업의 업종전환을 부추기고 공동화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2) KEC는 수 백 종의 유해화학물질과 수소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시민의 안전도 위험합니다.

KEC는 200여종이 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회사는 공장부지의 절반을 개발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을 전혀 무시한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 가동 중인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수소가스는 인 근 2km 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폐업의 공포는 괴담이 아니다

가동중인 공장에 복합쇼핑몰 건립?

3) KEC는 구조고도화 대상부지는 유희부지가 아니라 공장부지입니다.

(주)KEC는 유희부지에 대형쇼핑몰과 복합환승터미널, 오피스텔, 의료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KEC가 개발대상지로 지목한 부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희부지가 아닙니다. 현재 공장경영을 총괄하는 관리본부동과 기숙사가 들어서 있으며, 직원들을 위한 운동장과 풋살경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를 유희부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구조고도화로 개발차익을 노리는 업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희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땅을 유희부지로 만들 목적으로 2013년에 그 곳에 있던 어셈블리 공장을 폐쇄하고 태국공장으로 이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2012년

4/18 CEO

• 구조 고도화 관련 consulting 하기 0

↳ FAB 대체 공장부지 모색 필요!

- ▶ 구조고도화 추진으로 휴폐업 부지가 아닌 1공장(뽕공장)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 결국 대상부지가 아닌 곳에 있는 1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폐업을 의미함.

폐업의 공포는 괴담이 아니다

KEC 시민 배포 홍보물

KEC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것은...

KEC는 구미지역과 함께합니다.

- ▶ 고용인청 그 이상 고용확대
 - KEC구미공장 구조고도화 성공추진 노사합의 결의문 채택:2014.10.14
- ▶ "전자기술의 창조 업" 반도체 사업 45년 향후 65년(100년) 구미에서 지속화
- ▶ 수상공인 협력증진 전통문화 유지 발전,공공사업 참여 등



KEC는 구미시민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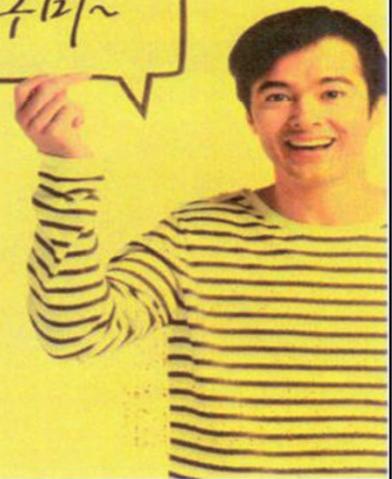
- ▶ 보고, 즐기고, 느끼는 교육공간(효 랜드마크 마린
- ▶ 가족과 이웃이 어울리는 테마타운 조성
- ▶ 주말(연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타운 조성



KEC는 구미경제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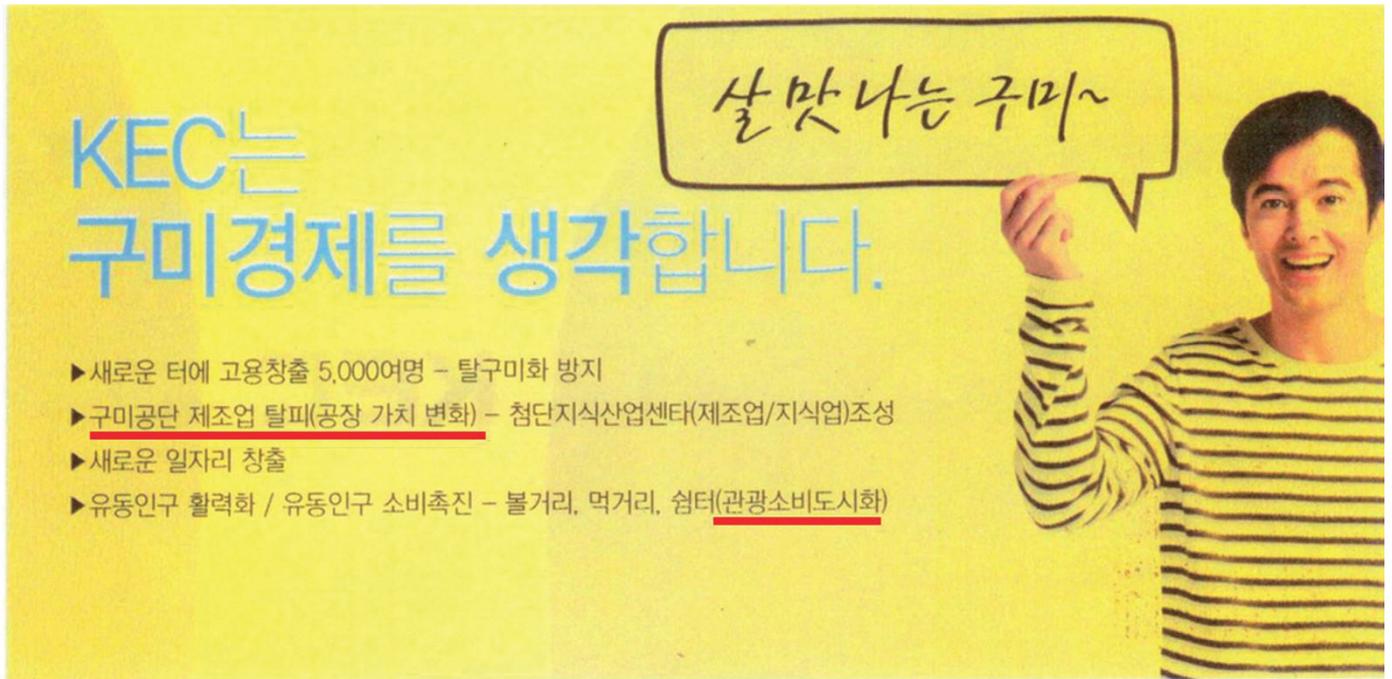
- ▶ 새로운 터에 고용창출 5,000여명 - 탈구미화 방지
- ▶ 구미공단 제조업 탈피(공장 가치 변화) - 첨단지식산업센터(제조업/지식업)조성
-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 유동인구 활력화 / 유동인구 소비촉진 - 불거리, 먹거리, 쉼터(관광소비도시화)

살맛나는 구미~



폐업의 공포는 괴담이 아니다

KEC 시민 배포 홍보물



KEC는
구미경제를 생각합니다.

살맛나는 구미~

- ▶ 새로운 터에 고용창출 5,000여명 - 탈구미화 방지
- ▶ 구미공단 제조업 탈피(공장 가치 변화) - 첨단지식산업센터(제조업/지식업)조성
-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 유동인구 활력화 / 유동인구 소비촉진 - 볼거리, 먹거리, 쉼터(관광소비도시화)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제발 더 이상 우리 일자리를
흔들지 마십시오!**

